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신소재공학부 신소재공학전공 13학번 박지수입니다. 현재는 LG화학에 합격해서 즐거운 연수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무려 6년이라는 긴 시간을 영남대학교와 함께했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동안 대학생활을 보내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아쉬움”이었습니다. 제가 겪어온 생활들을 여러 범주에서 이야기해드리면 좋겠지만, 이번 글은 취업에 대한 글이므로 취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목차]

1. [대학생활]
2. [취업에 필요한 항목]
3. [기타 전하고 싶은 말]
4. [Q&A]

1. [대학생활]

우선 저는 입학하기 전부터 신소재공학을 전공하고 싶었습니다. 그렇다고 신소재란 무엇인지, 무엇을 배우는지 상세히 알지는 못했지만, 어느정도 가이드라인은 갖고 입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성적, 과제, 조기졸업과 같은 항목들의 제 머리에 가득했습니다. “당일수업 당일복습”이라는 원칙을 갖고 실제로 나름 만족할 정도로 공부했고, 도서관이나 기숙사에서 살다시피 공부했습니다.

군대에서 2년이 조금 안되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온 2학년의 생활은 보다 치열했습니다. 김석영 교수님의 지도 하에 학부연구생으로 1년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실험과 공부를 동시에 잡아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느낀점은 2가지였습니다. 첫번째, 대학원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단편적인 게 아니라 수없이 고민해서 결과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는 것. 두번째, 밖을 돌아다니면서 좀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2학년 말에 저는 연구실을 나오게 되었고, 3학년 말까지 1년동안을 그룹 혹은 개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대외활동”이라는 것을 학업과 함께 이어 나갔습니다. 아마 이순간이 제 대학생활 중에 가장 재미 있었으면서 가장 힘들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수업을 가고 남는 일과시간은 거의 대외활동 시간이었습니다. 활동이 많은 만큼 바쁘게 살아가는 제 자신이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 여가시간이 없다는 점에서 회의감도 들었습니다. “취업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점점 미뤄지는 과제나 공부를 다 해낼 수 있을까?”와 같은 고민들이 힘들게 했던 기간들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버텨야지’ 하면서 저와의 싸움을 하던 중 2017년 11월을 기점으로 대외활동들이 마무리가 되기 시작했고 저에게 휴식이라는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평소 잘 쉬지 못했던 저는 소중한 겨울방학 중 절반은 휴식으로 보내버렸고, 아차 싶은 생각과 함께 4학년 초를 맞이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인턴을 지원했지만 시험에서 떨어졌고, 별일 없이 4학년 1학기를 보냈습니다. 방학 때부터는 좀 더 서둘러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인적성을 비롯해서 자기소개서, 모의면접 등을 준비했습니다.

총 6개의 서류지원, 5개 서류합격과 1개 서류탈락을 통보받았습니다. 연이어 인적성시험을 치른 후에 면접을 거쳐 현재 회사에 최종 합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약 3주간의 휴식 뒤에 현재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2. [취업에 필요한 항목]

취업이라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항목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성적”, “어학”, “자기소개서”, “인적성”, “면접”. 총 5가지 항목입니다.

① 성적 : 성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기업에서 개인이 얼마나 대학생활에 성실히 임했는지, 전공능력은 어느정도 되는지를 평가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늦은 때는 없으니, 마지막 학기가 되는 순간까지도 재이수를 통해서 전공성적을 조금이라도 올리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② 어학 : 모두 아시죠? 저희는 공대입니다. 정말 기본만 하시면 됩니다. 회사에서는 그리 높은 어학성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토익 750, 토스 Lv.6, 오픽 IM 만 챙기시면 됩니다. 물론 취업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이게 어학공부의 끝은 아닙니다!

③ 자기소개서 : 자기소개서는 본인의 경험을 풀어내는게 중요합니다. 경험이 있든 없든 간에 내가 뭘 했는지 기억이 안나는 사람이 절반 이상일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추천 드리는 게 “어울림” 사이트입니다. 어울림 사이트는 교내 취업지원 사이트로서 portal.yu.ac.kr로 가셔서 본인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시어 상단 배너에서 접속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통합상담시스템-진로 및 취업상담 배너를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담선생님을 빠른 시일내에 찾길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무한대라면 스스로 준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시간은 금입니다. 최대한 시간을 아껴서 본인이 필요한 시간에 적재적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실 때는 회사 및 업계 동향에 대해서 꼭 분석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유는 “면접” 항목에서 설명하겠습니다.

④ 인적성 : 인적성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에서 서류전형 다음으로 치루는 시험의 일종으로 인성 및 적성검사의 줄임말입니다. 회사마다 실시하는 영역이 다르지만, 가장 일반화 되어있는 영역분류로는 언어/수리/추리/시각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인적성의 경우에는 개인별로 준비기간이 다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인적성에 취약한 편이라 약 2달반 정도를 자소서 작성과 겸하여 준비하였습니다.

⑤ 면접 : 마지막 항목인 면접입니다. 면접은 자기소개서에 써져있는 내용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면접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말을 정리하지 못하거나,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아서 긴장만 하다가 면접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부터 준비를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자기소개서를 무작정 쓰기보다는 자기소개서가 면접의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쓰신다면 말도안되는 끼워넣기식의 자기소개서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간단한 예를 들어 휴대폰을 만드는 회사에 대해서 쓴다고 한다면 휴대폰 판매시장에 대한 상황을 알고 쓴다면 보다 수월하게 자기소개서를 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왔다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난 휴대폰이 좋아서 이 회사에 지원했다 라고만 쓴다면 무조건 합격만 시켜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질척거리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잘 유념하시어 자소서를 쓸 때부터 면접내용까지 함께 고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면접을 준비하실 때는 교내 취업동아리에 참여하시어 활동하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교내 취업동아리는 yu.ac.kr에서 하단에 있는 주요 사이트 배너에서 "취업지원실" 탭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동아리가 꽤 많으니, 본인에게 맞는 동아리를 찾기위해 면접을 진행하시어 활동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과 함께 면접을 준비하면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상식이나, 같은 질문이라도 다른 관점의 답변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완전 추천드립니다.

3. [기타 하고 싶은 말]

첫번째 목차에서 저의 대학생활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재미있어 보이셨나요? 아마 아니실겁니다. 그게 제가 서두에서 말한 "아쉬움"이었습니다. 1학년 때는 공부만 하느라, 2학년 때는 연구실에 있느라 동기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학년과 4학년 때는 시간이 날 때마다 동기 혹은 학교 선배들과 놀러다녔습니다. 방학 때 해외여행은 꼭 갔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대학생활 끝에 저에게 남았던 것은 '성적', '취업성공' 이런 것보다 '동기들과 조금이라도 더 놀 걸', '친구 조금 더 사귄 걸', '그래도 놀러다니고 추억남겨서 참 좋다'. 이런 생각들이었습니다.

취업이 참 힘든 시기라는거 저도 잘 압니다. 실제로 이번 연수를 통해 느꼈던 점은 지방대가 정말 정말 많이 없다는 가슴아픈 현실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마음 아픈 것은 "내 선배가 여기다녀서 이거 아는데~~" 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제로 취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취업을 희망하는 회사에 현직자가 있고 없고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의 동향, 주력상품, 회사 문화, 분위기 등 많은 부분에서 시간을 아낄수도 있고, 본인이 이 회사에 맞는 사람인지 판단할 척도가 생깁니다. 또한 자소서, 면접과 같은 항목들을 현직자 관점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후배님들이 계신다면 꼭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도 참 중요한거긴 하지만, 동기들과 소중한 추억을 하나라도 더 만들고 졸업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취업을 위해 열심히 달려야하는 것도 맞지만, 우리는 매번 매순간 24시간을 취업만을 위해 사는 기계는 아닙니다. 대학생이라는 신분속에서 느낄 수 있는 자유, 해방감 등을 최대한 많이 느끼시고, 여행도 많이 다니시길 바랍니다. 매일 집구석에서 휴식만 취하는 수동적인 사람보다 좀 더 둘러보고 좀 더 적극적인 후배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학생 때 있던 추억으로 직장에서 곱씹으면서 살게 된다고 하니깐요. 그럼 두서없는 저의 긴 글을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Q&A]

Q. 학업 공부하는데 팁은 있을까요?

A. 수업 때 필기한 거 끝나고 다시 필기하십시오. 정리만 해서 될 게 아니라 복습을 하셔야하고, 다른사람이 물어볼 때 설명할 수 있게 연습하시는 순간 점점 본인의 것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A4용지에 판서하는 느낌으로 말하면서 쓰면서 복습을 주로 했습니다.

Q. 어학공부는 어떻게 하셨어요?

A. 저는 평소에 영어를 좋아해서 그렇게 부담되지 않게 공부했어요. 그렇다고 800점, 900점 되고 그런건 아니지만, 시험을 위한 준비라면 포커스 맞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같은 미디어에서 토익 무료인강 찾아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것만 봐도 700점 넘기시기엔 충분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암기를 잘한다→토익스피킹/ 자유롭게 말하는것에 강하다→OPIC을 준비하십시오. 저는 토익스피킹을 응시했고, 교내환급반에서 1달 수강하고 lv.6 바로 받았습니다.

Q. 인적성 공부는 뭐부터 시작해야되나요?

A. 문제 많이푼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시중에 있는 문제집도 다 똑같은 문제집이 아니라 출판사 별로 퀄리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삼성이 표준시험이라 삼성을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해커스>위포트>에듀윌>에듀스>시대고시 등 순서(제 주관적인 의견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길 바랍니다.)입니다. 해커스는 파랑이를 통해 유형먼저 푸시고 하양이를 통해 실전감각 익히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어는 유형별로 꾸준히 푸셔야 감을 익힐 수 있으니 놓지말기를 바라시고, 방학 때 S취업컨설팅에서 인적성 무료교육을 해줍니다. 대부분의 스킬들은 여기서 챙겨가실 수 있으니 많이 부족하시거나 처음 인적성 접하시는 분들은 꼭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울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Q. 대외활동은 어떤 거 하셨나요?

A. 정확히 몇 개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공기업 서포터즈, 한국장학재단 재능봉사 캠프, 휴대폰 홍보 서포터즈, 리더십 캠프 다수, 하계 현장실습, 공모전, 경진대회 다수 등 해볼 수 있을 만한 것은 다 해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표도 많이 해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 많이 이야기를 해보면서 많은 점을 느꼈습니다. 대외활동은 마음이 맞는 친구끼리 함께 팀을 이루어 서류제출해도 괜찮고, 교내에서 모집하는 활동들에 대해서는 개인으로 신청해서 활동하셔도 좋습니다. 이왕이면 새로운 사람 만나기 위해 혼자 대외활동 신청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외활동가서도 같은 과 친구랑만 붙어있으면 의미가 반감되니까요.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010-9184-3714로 연락주시면 시간 될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한이라 날이 많이 춥다고 합니다. 다들 건강관리 유의하시면서 취업 성공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